





홍건적을 물리친

# 총렬공 이방실 장군 [李芳實]



이방실 장군 [李芳實]  
(1298~1362)

이방실 장군은 고려시대(高麗時代)에 판도관서(版圖判書)를 지낸 이원(李源)의 아들로서 고려 공민왕때의 유명한 구국장군으로 함안 이씨(咸安李氏), 파산 이씨(巴山李氏)의 중시조이다. 그는 고려 충렬왕 24년(1298)에 지금의 경남 함안군 여항면 대동에서 부구몽의 장기를 이어 받아 태어나서 고려 말엽의 최충(崔忠)에 의한 존당(尊堂)의 위치를 누차에 걸쳐 구한 명장이다. 그는 고려 오백년 역사를 지킨 4성군(四聖君)과 16공신 중의 한 사람으로서 현재 경기도 연천군 이산면에 소재하는 충의전(忠義殿)에 제향(配享)되어 국가에서 공주(公秩)로 제사를 지내고 있다.

이방실 장군은 충목왕(忠穆王)을 따라 원나라에 들어가 시종할 때 뛰어난 지모(智謀)와 무용(武勇)으로써 왕을 안전하게 보필한 공으로 왕이 즉위하자 그 지략을 인정하고 인공을 가실(監司)이 여기 중랑장(中郎將)에 보좌되고 호군(護軍)에 옮겨 전(田) 백경(百鎭)을 하사(下賜)하였다. 1354년(공민왕3)에 태조군(太祖君)으로 올라 신성(宣誠)에서 다루까지 노연장(魯顯將)이 모반하자 용주(龍州)의 병사를 이끌고 이를 진압하였다. 1359년(공민왕8)에 우리 나라를 침략한 몽진적의 귀수 보지경 위정장(歸正將) 등은 4년의 몽진적(蒙進賊)을 이끌고 압록강의 얼음판을 건너와 의주(義州)를 함락하고 이 나라 관원(官員)인 부사(副使) 주영세(周永世) 및 주연 권이명을 죽이고 다시 정·관주(鄭·關州)를 함락하여 도지원사(都節軍使) 김한봉(金元鳳)을 살해함으로써 드디어 안주(安州)에 들어가 하였다.

이때 이방실 장군은 안주연호(安州高戶)로 안주(安州), 이흥(李興), 이연부(李延福) 등과 협력하여 적을 압록(鴨綠) 서경(西京)안에서 격파한 공으로 이방실 장군은 추성렬보공신(推誠烈保功臣)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로, 안주는 추충절의정관공신 중서경장정사(推忠節議定殿議司) 판공주부(判公州府)로, 김득제는 추충모절정원공신(推忠模節正元功臣) 판공주부(判公州府)로 제수되었다.

여기 봉화산(峯山, 巴山) 중턱, 고려충신 충렬공 이방실 장군이 태어나고 자란 이곳에 장여촌 부대인으로서 차공실을 가지고 이방실 대아공원을 조성하여 지금을 계입니다.

2019년 12월  
추진위원 김명환 김홍근 장석현





뒤에 홍건적(紅巾賊)이 전한 70여명으로 서해도(西海道)에 제정하라 중주(中州)에서 이등 물러지니 작은 크게 기뻐하여 제신(諸臣)에게 칼연을 내리시고 이방실 장군에게 옥대(玉帶)와 옥령(玉璽)을 하사(下賜)하였다. 이에 공주가 이를 보고 말하기를 "이제 제모(聖母)를 사랑하지 않고 가엾게 남에게 주시니 어찌" 하니 왕이 말하기를 "우리 종사(宗社)가 폐허가 되지 않게 함은 다 방실의 공(功)이다. 내가 비록 말을 빼어 주더라도 오히려 능히 모답하지 못하였거늘, 화물과 이 물건이 어찌 아까우리오" 라고 말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사실로 보아 우리 민족을 구한 공헌을 이방실 장군의 업적은 정종(聖宗)일과 동시해 위대한 영웅임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1361년(공민왕 10)에 홍건적인 위령장(魏靈將), 만길(滿吉), 사육(沙六), 관진생(關進生), 주원수(朱元壽) 등이 동맹(同盟)으로서 기원(紀元)하고 적의 무리 20만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 작주(曠州)와 이성(迎城)에 침입하자 안주(安州)를 장원수(上元帥)로 김득배를 도첨사(都僉使)으로 제하고 안주(安州) 일대에서 항해하게 하니 최윤선 개성경의 적의 손에 함락되었으니 이때 공민왕은 북주(北州-가금의 정복안동)에 피난하였다. 1362년(공민왕 11)에 이방실 장군은 서북면 도지휘사(西北面 都指揮使)로 세수되어 동명왕(東明王) 장계촌(張啓村), 안주(安州), 김득배(金得培), 몽상(蒙相), 만방진(萬方鎭), 이어경(李繼景), 안주경(安州景), 최영(崔瑩) 등과 함께 20만 대군을 이끌고 봉고(鳳高)의 천수사(天守臺) 앞에서 전을 치고 사졸을 도피하여 적을 쫓아내고 관적(官籍)을 없애고 나라로 귀환, 개천하게 되었다. 성화 같은 구국의 공을 정스까지 시가하던 민진(民進), 김승(金承)은 화제(和議)로 종사(宗社)의 대군을 깨트려 3천수인 안주, 김득배와 더불어 이방실 장군을 섬게 하고 있었다. 이에 이방실 장군의 아들 중문(中門)은 나이 겨우 10여세였으나 당지의 사단들은 "지금 우리 모두가 짐승을 편히 함은 다 원수님의 공이다"라고 하면서 그를 국인의 보호하였다 한다. 국난(國難)을 극복한 영웅을 가온대 이방실 장군은 비록 만 김득배, 안주 등 고리 3천수가 국운이 누란(亂)의 위기(危機)에 처하여 사졸이 함락되고 거의 대부분의 국초가 홍건적에게 빼앗겨 남까지 힘을 서기에 의해 (弱)의 모용없이 이를 수복(收復)하였다는 것은 고구려의 영웅왕에 수나라 백관대군을 물러한 조조(趙雲)나 오진소신조(劉雲)와 더불어 이방실 장군(李方實)을 필경(平定)한 이순신(李舜臣) 장군의 공(功)과 더불어 우리 민족사(民族史)에 길이 빛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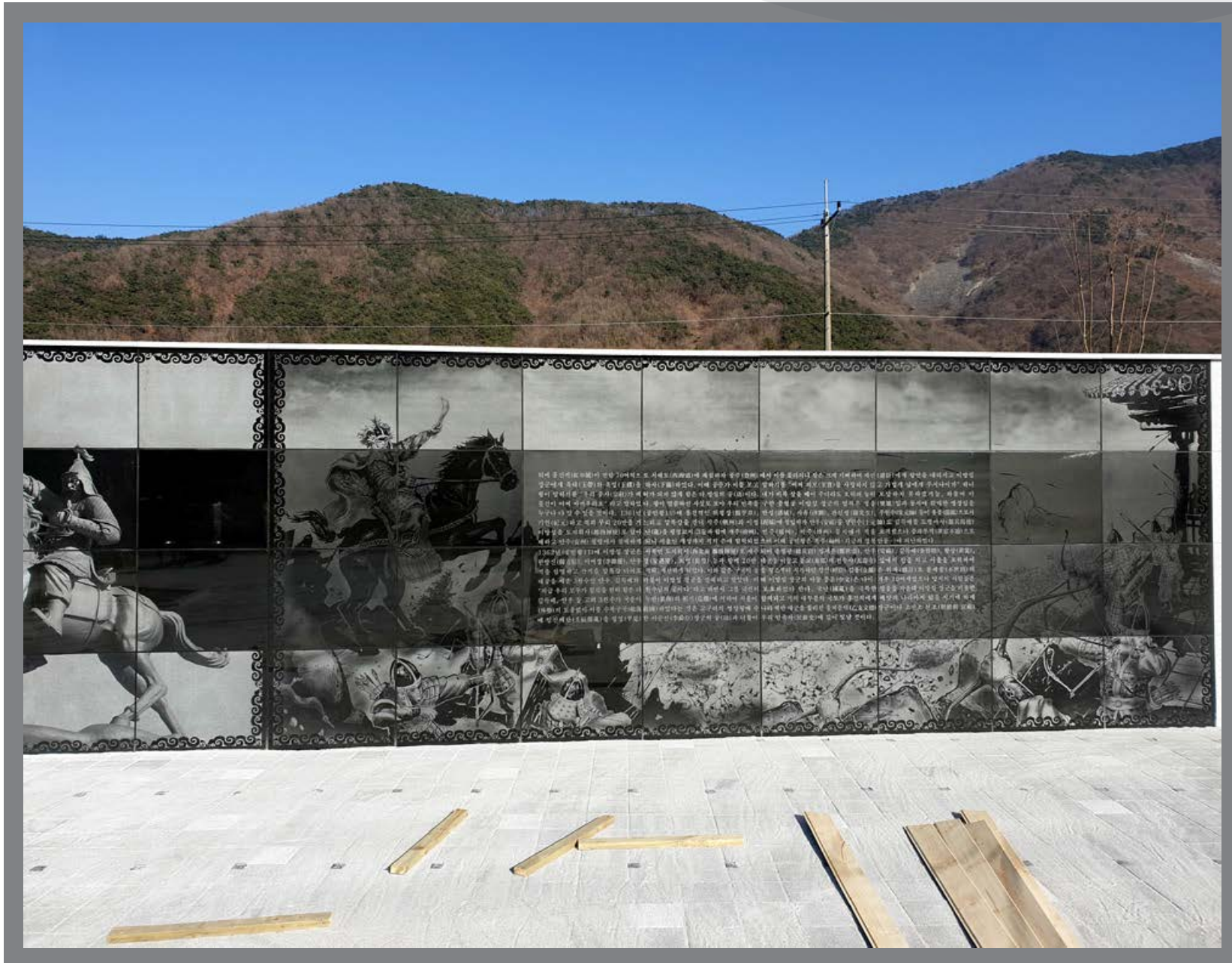


















홍건적을 물리친  
충렬공 이방실 장군 [李芳實]



이방실 장군 [李芳實]  
(1298~1362)

이방실 장군은 고려시대(高麗時代)에, 관도판서(監御判書)를 지낸 이원(李元)의 아들로서 고려 공민왕때의 충절한 국장으로도 알려진 의성(義成)인 이원(李元)의 증손자이다. 그는 고려 충렬왕 24년(1298)에 지금의 경남 함안군 대항면 대항에서 주공의 장자로 아홉 번째 태어났으며 고종(高宗)이 원(元)에 의한 존망(存亡)의 위기를 누차에 걸쳐 구한 영웅이다. 그는 고려 요새인 적사동 지관(積善洞)의 지관으로서 1359년 충렬(忠烈)과 1362년 충무(忠武)를 받들어 충주(忠州)에 소세하는 충의전(忠義殿)에 배향(配位)되어 국가에서 존주(尊主)로 제사를 지내고 있다.

이방실 장군은 충무왕(忠穆王)을 따라 한나라에 들어가 서중할 때 뛰어난 지도(智道)와 무용(武勇)으로써 왕을 안락하게 보필한 공으로 왕이 국호를 고쳐 명을 인정하고 인품을 가상(賞)하여 여러 중랑장(中郎將)에 보좌받고 호군(護軍)에 출거(出居) 선(先) 백(白)을 후(後)로 하였다. 1359년(충렬왕 29)에 주공(主功)으로 올라 친성(宣城)에서 다루가치 노연상(魯演相)이 모반하자 충주(忠州)에서의 병사를 이끌고 이를 진압하였다. 1359년(충렬왕 29)에 주공(主功)으로 올라 친성(宣城)에서 다루가치 노연상(魯演相)이 모반하자 충주(忠州)에서의 병사를 이끌고 이를 진압하였다.

홍건적의 괴수 모거경 위정장(魏正將) 등은 8만의 홍건적(洪 건적)을 이끌고 일종의 병을 받은 전라 좌도(左道)를 공격하고, 이 지역 관주(官主)인 주영세(朱永世) 및 주인 친어명을 죽이고 다시 정(正) 관주(觀主)로 명하여 도지부사(都知府使) 김원(金元)을 일제(一擧)로 공격하고, 1362년(충무왕 6)에 주공(主功)으로 올라 친성(宣城)에서 다루가치 노연상(魯演相)이 모반하자 충주(忠州)에서의 병사를 이끌고 이를 진압하였다.

이때 이방실 장군은 안주안도(安州安道) 본 안부(安副), 이충(李忠), 이원(李元), 이진(李震), 이현(李顯) 등의 형제와 적을 일제(一擧)로 공격하고, 1362년(충무왕 6)에 주공(主功)으로 올라 친성(宣城)에서 다루가치 노연상(魯演相)이 모반하자 충주(忠州)에서의 병사를 이끌고 이를 진압하였다.

추설(推)보공신(保) 수밀(守)한부사(翰) 정원(正)정(政)정(政)으로 제수되었다.

이 벽화는 조선(朝鮮) 건국 초기, 고려(高麗) 충무왕(忠武王)이 원(元)에 항복하고 개원(改元)한 1392년(충무왕 18)에 이방실 장군을 추모하여 지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8년 12월  
수원(水原)시립박물관(市立博物館) 건립













뒤에 홍건적(紅巾賊)이 전함 70여척으로 서해도(西海道)에 세칭하자 장군에게 옥대(玉帶)와 옥말(玉鬮)을 하사(下賜)하였다. 이때 공주가 이 왕이 말하기를 "우리 종사(宗社)가 폐허가 되지 않게 함은 다 방실의 공(功) 물건이 어찌 아까우리오" 라고 말하였다. 왕이 말씀하신 사실로 보아 우리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1361년(공민왕10)에 흉경적인 위경장(魏敬將) 기원(紀元) 하고 적의 무리 20만을 격노리고 압록강을 건너 삭주(朔州)로 이방실을 도지휘사(都指揮使)로 삼아 난(亂)을 평정코서 그들과 함께 개주(開州)에 배마고 안주(安州) 절영에서 참패하게 하니 서울인 개성까지 적의 손에 함

1362년(공민왕11)에 이방실 장군은 직북면 도지휘사(直北面 都指揮使)로 한방신(韓方愼), 이여경(李維慶), 안우경(安禹慶), 최일(崔億) 등과 함께 적을 섬멸하고 잔적을 압록강 너머로 격퇴, 격멸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구국대공을 세운 3원수인 안우, 김복해와 더불어 이방실 장군을 찬미하고 말한 "지금 우리 모두가 짐작을 전히 함은 다 원수님의 공이다"라고 하면서 그를 김복해, 안우 등 고려 3원수가 죽은이 후란(胡蘭)의 위기(危機)에 허하여 소(外勢)의 도용없이 이를 수복구국(收復救國)하였다는 것은 고려의 영광을 세 입진태왕(王辰德讓)을 평정(平定)한 이순신(李舜臣) 장군의 공(功)과 더







